

# 결혼식장·요가 가격표시 의무화 깜깜이 계약·먹튀 피해 막는다

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시행  
세부내용·요금·계약해지 위약금 등  
누리집·참가가격 중 한곳에 표시해야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 계약’이나 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업체별 세부 요금과 환불기준도 별도로 표

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 정보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 취지에 발맞춰 한국예식업중앙회(02-3443-3788)는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가 그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 헬스장과 동일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이나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 및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중 사업자들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협경제지주가 이달 미국 내 한인마트 등지에서 진행 중인 국산 배 홍보행사.

/농협

## 농협, 美 워싱턴 등서 ‘한국산 배’ 알린다

한인마트 37곳서 집중홍보

농협경제지주가 세계 최대 농식품 소비자인 미국에서 ‘한국산 배의 수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이달 6일(현지시간)부터 집중 홍보를 벌이고 있다.

11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 주요 한인마트 37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여는 등 한국 배의 아삭한 식감과 청량한 단맛 소개에 나섰다.

또 현지 ‘커넥티드TV’ 광고를 송출해 미국 소비자에게 한국산 배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무관 및 식약관

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미국 수출동향 파악에도 한창이다. 이 광고는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TV 또는 스트리밍기기를 통해 송출되는 디지털 광고를 가리킨다.

행사에는 농협경제지주를 비롯해 한국배수출연합, 한국배연합회, 한국배수출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산 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려 K-푸드의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T, 베트남 K-푸드 페어서 1370만弗 MOU

아세안 수출확대·소비문화 확산 도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상순 베트남 하노이·하이퐁에서 ‘2025 아세안 K-푸드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K-푸드의 아세안 지역 수출확대 및 현지 소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행사다.

11일 aT에 따르면 상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선별했다. 이어 1:1 맞춤형 상담을 병행한 결과, 소스류·선선과일류·냉동식품류 등을 중심으로 총 39건·137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퐁 빈흥 로얄아일랜드 야외광장에서 열린 소비자 체험행사에는 ▲현지 진출한국식품기업 ▲한국농식품수입바

이어 ▲현지 외식업체 ▲한식당 등이 참여해 판매·홍보부스 24개를 운영했다.

aT는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포도·배·사과 등 신선 농산물부터 쌀·음료·인삼음료·두유 같은 음료류, 안동소주와 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까지 폭넓게 체험하도록 기획했다.

또 ‘오징어게임’ 콘셉트를 활용한 ‘K-푸드 오징어게임’, ‘김치만들기 체험’, ‘K-콘텐츠 체험공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을 찾은 9만 여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B2B 행사도 이어졌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6개국의 바이어 111개 사와 국내 수출업체 43개사가 참여해 열린 상담이 이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 채불임금 대지급금, 세금처럼 바로 압류

근로복지공단, 회수절차 대폭 강화  
회수율 제고·신속 채권회수 가능해져

임금채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채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민사절차 대신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회수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채납사업주가 채산을 은닉할 경우 실질적 회수율이 떨어

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압류·공매 등 행정적 집행이 가능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채불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만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도 회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도급구조 전반의 체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혹은 지급능력 부재 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2024년 한 해에만 7242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92%(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도입 이후 신청 간소화와 상한액 인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회수는 민사절차에 의존하면서 연체·체납이 누적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고객채권 집중회수팀’과 지역별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법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중부발전, 국제품질분임조대회서 ‘금상’

한국중부발전이 세계 품질인의 축제인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rol Circles)’에서 참가한 두 팀 모두 최고상인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

11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지난 3일~6일까지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으며, 15개국 911개 분임조, 약 2000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중부발전을 비롯 12개 기관 29개 분임

조가 대표로 출전했다.

중부발전은 2005년부터 매년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는 보령발전본부와 서울발전본부 분임조가 각각 ▲보일러 연소기술 학습을 통한 트러블 건수 감소, ▲복합화력 가스터빈 운전 공정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력손실 저감 등의 혁신활동을 발표해 발전소 안전성 제고와 고장정지 저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 11월 3일~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ICQCC에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너지팀 분임조), 서울발전본부(회전자 분임조)가 Gold Award를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부발전

## 산업부, 바이오기업 수출·투자 정보제공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

산업통상부는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바이오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정보제공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과 촉진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카라반은 지난 10월 30일 대전 지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5 강원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클리어보이언트벤처스, 신한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 1대 1 현장 컨설팅과 함께 투자유치, 상장준비,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노하우를 제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